

‘인구 유입’ 신호탄… 여수 청년마을 ‘가온’ 뜬다

청년 문화 공간… 가능성 입증
체류형 문화창작 활동 등 연중
수도권 청년 유입·정착 본격화
충무동 일대 쉼터 공간도 조성

전라남도 여수시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기동 일대에 조성한 '청년마을 가온'이 올해 2차 연도를 맞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청년친화 프로그램으로 무장한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가온'은 청년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 예술인의 실험과 교류 공간으로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던 한 청년문화예술인이 프로그램 참여 후 여수로 전입해 창작활동과 지역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정착의 신호탄을 쏘았다.

올해는 가온 1호점에 이어 2~3호점 개소를 준비 중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활동 기반을 제공한다는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문화의 다양한 실험과 창작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3주 살이 프로그램'을 통한 체류형 문화창작 활동 △지역 청년과 타지 청년이 함께하는 '가온 리트릿(Retreat) 캠프' △예술작품 전시와 공연 중심의 'The 가온 프로젝트'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커피&베이킹, AI 교육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된다.

여수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에 수도권과 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된다.

올해 예정된 주요 행사로는 △거북선 축제 △충무지구 청년거리 문화한마당 △낭만·청춘버스킹 △흥국사가문화관광형 행사 등이 마련돼 청년 예술인들이 버스킹과 전시, 팝업스토어 등으로 참여하며 지역 주민 및 관광객과 소통할 수 있다.

시는 가온과 별도로 충무동 일대 방치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청년 쉼터 공간도 조성 중이다.

해당 공간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청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새로운 쉼터 공간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적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청년단체인 여수청년마을가온의 팀제로백 대표 백현공씨는 "청년들이 여수에서 살아보고, 창작하고, 도전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과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는 청년마을이 단순한 체험공간이 아닌 청년 창업과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청년이 활약하고 정착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서시교 존치 1만명 서명운동
구례군 냉천리 주민들 첫 발대식

지난 23일 전라남도 구례군 서시교 공동대응기구가 마산면 냉천리 마을회관에서 '서시교 지키기 1만명 서명운동 냉천리 발대식'을 가졌다

전라남도 구례군 서시교 공동대응기구는 지난 23일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마을회관에서 '서시교 지키기 1만명 서명운동 냉천리 발대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11일 구례군의회 광장에서 열린 서시교 존치 서명운동 발대식에 이어 처음으로 마을 단위에서 열린 행사로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서시교는 구례지역 주민에게 일상적인 통행로로 이용돼 온 다리로 철거 또는 구조 변경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시교 공동대응기구는 서시교 존치를 위해 군민 여론을 결집하고자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냉천리 발대식을 시작으로 25일 용방면 이장단 설명회, 29일 구례읍 의장단 설명회 등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길선 구례군의회의장은 발대식에서 "냉천리를 시작으로 서명운동이 군 전체로 확산돼 군민 뜻대로 서시교가 지켜지길 바란다"며 "1만명 서명 달성을 위해 많은 군민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우주항공축제’ 기념 숙박비 할인
고흥군, 야놀자와 맞손

전라남도 고흥군은 오는 5월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앞두고 국내 대표 숙박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협업체 특별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28일부터 5월11일까지 야놀자 플랫폼을 통해 고흥 관내 숙소를 예약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4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

할인 조건은 예약 결제 금액 7만원 이상 시 4만원, 5만원 이상 시 3만원 할인이며 쿠폰은 6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숙박 할인 프로모션은 고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숙박비 부담을 덜어주고 관광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흥우주항공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순천 세계정원 마을여행’
내달 9·10·16·17일…총 4회 운영

전라남도 순천시는 오는 5월9일과 10일, 16일과 17일 총 4회에 걸쳐 순천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순천 세계정원 마을여행’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철도 관사, 기독교 성지’와 같은 기존 대표 자원이 아닌 ‘순천에 녹아든 세계정원’이라는 새로운 접근으로 마을을 여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먼저 조곡동 철도 관사에서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와 현재의 일본식 주택과 정원을 여행한다.

다음으로는 순천 최초의 외국식 정원 마을인 매곡동 선교사 마을로 이동해 당시 선교사들의 애정이 담긴 정원에서 사유하는 시간을 갖고 저전동 정원마을에서 마을정원사가 들려주는 정원의 비밀을 들어본다. 여행 중간중간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활동이 준비돼 있다는 점도 이번 여행의 매력 포인트다.

회차당 15명을 모집하며 신청 방법은 QR코드 또는 네이버폼(<https://naver.me/GV2BRCvC>)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4만원이며, 참가비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24일 장흥군 대덕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가 한 장애인 가정에서 벽 도배를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 대덕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은 최근 대덕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와 함께 관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가정은 거동 불편 장애인이 거주하며 도배·장판이 오래돼 곰팡이가 피고

방바닥이 들떠있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날 우리동네복지기동대원들은 벽 도배를 다시 하고, 방바닥의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정리에 나섰다.

함께한 우리동네복지기동대원들은 "대원들과 함께 어려운 가정을 찾아 봉사하

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봉사하는 우리동네복지기동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석 대덕읍장은 "함께 봉사해 주신 봉사대원들에게 감사드리다"며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해 더 많은 주민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보성군, 전남 유일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향후 3년간 국비 6억원 지원
녹차 주제 다양한 사업 추진

전라남도 보성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지원했으며, 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 실사, 3차 대면 심사를 거쳐 보성군은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와 인구 감소 대응을 목표로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정착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그린티모시레(대

표 용수진)’는 자발적으로 모인 외부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들은 지난해부터 회천면 영천마을에 거주하며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마을에서 역시 청년들의 열정에 화답해 주거 공간과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차(茶) 원료 제공과 재배 기술 전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기획력과 주민들과의 견고한 협력 구조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티모시레’는 오는 5월부터 향후 3년간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들은 지역 특산물인 녹차를 주제로 영천마을에서 △단기살이·장기살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명품 차(茶) 구독 서비스 출시 △청년 주도형 청년 마을 축

제 개최 △창업 실험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지역탐색과 일거리 실험에 참여하고,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청년마을 사업을 발판 삼아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는 물론, 살기 좋은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의 첫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은 지역 청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내가 걷는 길이 꽃길’ 걷기
광양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가 28일 오전 9시30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 ‘내가 걷는 길이 꽃길’을 운영한다.

27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해 5월 개소한 센터의 첫 번째 주민 참여 행사로,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 시작 전에는 센터 인근 지압 코스와 야외 근력 운동기구를 활용한 체험 활동과 함께, 간단한 운동 매뉴얼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문 체육지도자의 지도 아래 준비운동과 안전교육을 마친 후 본격적인 걷기 활동에 나선다.

걷기 코스는 센터를 출발해 마로니에길과 백운대길 등을 거쳐 다시 센터로 돌아오는 약 2시간 거리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번 걷기 행사는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 건강리더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들의 협력이 더해져 향후 센터의 걷기 동아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광양=안영준 기자